

우리고장 원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고장 원주는 중부내륙의 중심도시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나라의 작은 수도였으며, 궁예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인 고려는 석남사(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강원도의 으뜸도시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생명사상, 정의, 민주화의 열망이 자랄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원주의 꽃



장미

원주의 새



꿩

원주의 나무



은행나무

반곡역사관

관람 안내

관람시간 09:00~18:00 / 입장 마감 17: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공휴일 다음날

관람료 무료

연락처 033)737-5380

주소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36 반곡역사관

교통안내 자동차
남원주IC-반곡역사관(20분)(중앙고속도로)

대중교통(버스 이용)

원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부근 : 100, 16, 86, 52

원주역 부근 : 16-1, 52

*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http://its.wonju.go.kr>)를 참고하세요.

반곡역사관
BANGOK HISTORY HALL



반곡동의 과거와 미래

반곡동유적은 '강원 원주혁신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05년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고, 2006년 확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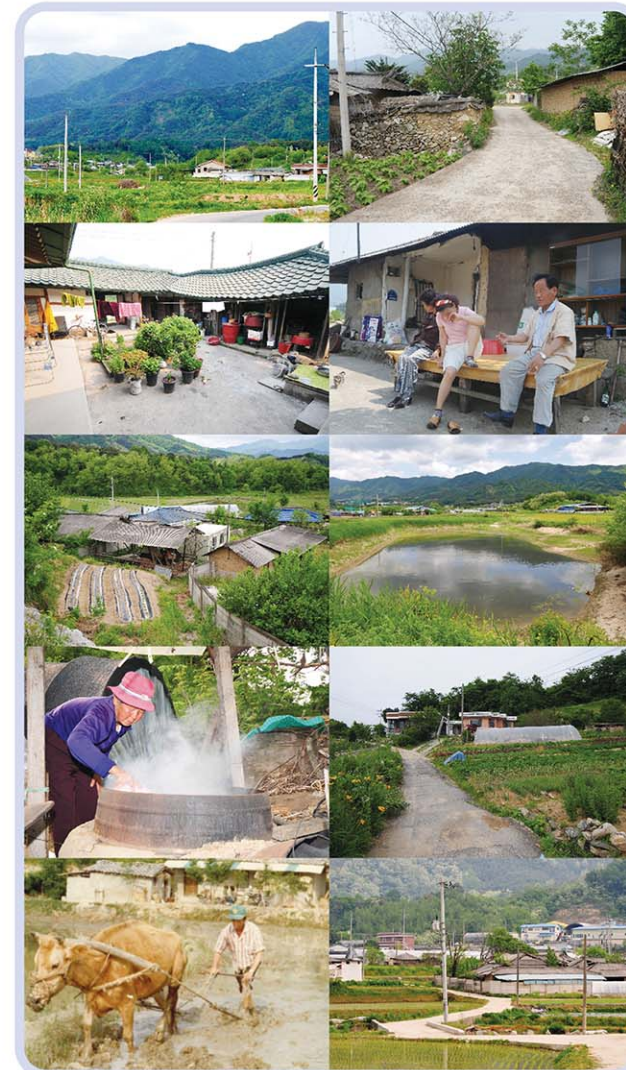
강원 원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06년 지표조사를 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3년간 진행된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다양한 역사자료가 확인되었는데요. 반곡동 신석기시대 유적은 원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반곡동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양산(陽山)인 치악산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원주천(봉천)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인심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원래 원주군 부흥사면에 속해 있었던 지역으로 지형이 소반처럼 생겼다 하여 반곡(盤谷)이라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반곡리가 되었다가 1973년 반곡동으로 개칭되었고, 1998년 반곡동과 관설동이 합쳐지면서 반곡관설동의 법정동이 되었습니다. 자연마을로는 뒷골(후동)·배울·뱅이두둑·버들만이(유만동)·봉대·삼보골·서리실·입춘내·한가터(일대) 등이 있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반곡역사관은 반곡동의 과거 모습을 확인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원주혁신도시로 탈바꿈한 반곡동의 미래 비전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의 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의 모습과
개발되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



반곡역사관 BANGOK HISTORY HALL



반곡동 첫 주민 신석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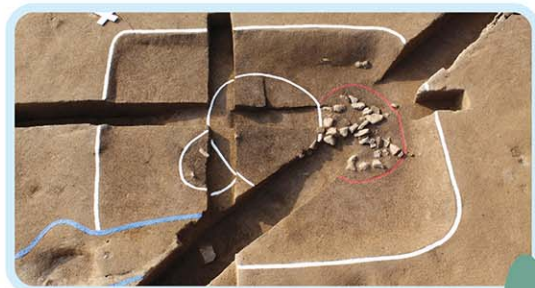
5천 년 전 우리는 처음 반곡동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우리는 신석기시대에 살았어요.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한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반곡동에 살며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물고기도 잡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맛있는 과일도 먹었죠.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있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원주에서는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쓰던 물건은 발견되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주 혁신도시 발굴조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생활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보통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냇가에 살았지만 우리는 냇가가 아닌 약간 높은 언덕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집자리 흔적, 야외 불자리 흔적, 집안의 불자리 흔적, 토기를 비롯한 생활유물을 통해 어렵게나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반곡동 첫 마을 청동기시대



3천 년 전 반곡동은 신석기시대가 저물고 금속을 사용하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청동기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을 향해 이주하여 살았고, 우리 민족의 형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반곡동 우리 마을은 영서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얇은 언덕위에 있었고, 집자리는 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집자리에서는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토기, 석기, 불뎀자리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물줄기인 원주천이나 섬강 근처에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확인됩니다. 물론 원주혁신도시에서도 집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시대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벼농사도 짓고, 다양한 흙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신석기시대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력이 높아지고,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권력과 분배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는 불평등 해졌고 차츰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반곡동 첫 나라와 북원경의 흔적



철기시대가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교류가 증가하면서 고대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원주는 고대 삼국이 정립되기 전에는 삼한의 하나였던 마한 소국 중의 하나였으며 이후 고대국가가 체제를 갖추고 쟁투가 본격화하면서 백제, 고구려, 신라의 영토로 바뀌게 됩니다.

평원군(平原君)이라는 이름도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문무왕이 지방을 정비하면서 북원소경(北原小京)이 되었고, 경덕왕 때 북원경(北原京)으로 바뀝니다.



반곡동유적에는 철기시대의 집자리, 토기 등의 많은 유물들이 발굴·조사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현동유적 등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반곡동 사람들의 삶의 흔적 고려·조선시대



원주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23년(940)에 붙여진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조선 태조 4년(1395) 강원감영이 설치되면서 강원도의 수부도시가 됩니다.

원주혁신도시가 위치한 반곡동은 강원감영에서 동쪽으로 약2.5km 떨어져 있으며, 강원감영을 중심으로 한 시내에서 보면 관문 밖의 외곽에 해당합니다.

반곡동유적에서는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삶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기와를 굽던 기와가마, 고려 말 조선 초의 돌덧널무덤, 조선시대의 널무덤, 조선시대의 집자리와 건물지, 근대까지 사용된 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들 유구에서는 도기, 자기, 기와조각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생산 활동, 장례풍습 등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쓰가리병에 담긴 소망

쓰가리는 우리 조상들이 사랑한 물고기였습니다. 쓰가리의 한자로 꺾어라고 부릅니다. 궁궐의 꺾과 소리가 같아 입궐의 관운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